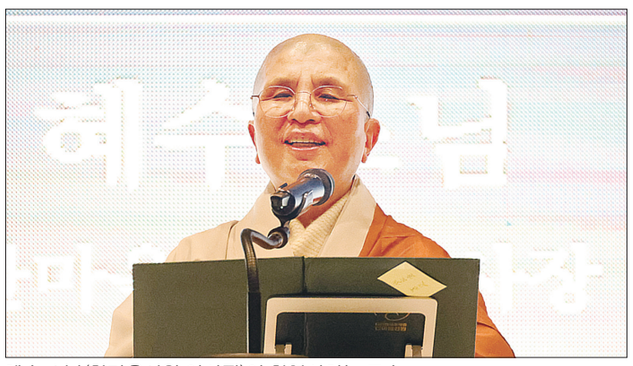
“참신한 콘텐츠로 미디어 포교 선봉장 되어 달라”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서 동참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모시고 있다.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이 환영사하는 모습.



혜도 스님(현대불교신문 발행인)이 내빈에게 인사하는 모습.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로패를 받은 김영숙 현대불교신문 후원회장(우측).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OB들이 모였다.

▶A4면에서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다. 현대불교신문의 사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고 갈 화두”라며 “이제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이 사시를 다시 되새기며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여 미디어 포교의 선봉장이 돼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명우 대표의 비전선포식이었다. 한 대표는 “바야흐로 AI시대를 맞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종이신문의 끝이 도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새로운 미디어 언론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싶다”는 말로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AI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불교 언론에 접목시키겠다고 선포하고 ‘뉴미디어 불교 언론’ 자문위원회를 소개했다.

현대불교신문 뉴미디어 자문 위원회에는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

한명우 대표, 미래 비전 발표 진행
“뉴미디어 신행 · 포교지 거듭” 다짐
출 · 재가자 5인 자문위원단 소개도

박훈 불교언론문화상 코디네이터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대불교신문이 가진 신행·포교지라는 성격을 뉴미디어를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어느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서른, 잔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 현대불교신문이 선보일 행보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모인 사부대중은 비전선포를 마친 한 대표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나아갈 앞날을 응원했다.

기념식의 마무리에서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신행·포교의 장이자 수행처”라며 “앞으로도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불교언론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로패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로자들은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초대 사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 김영숙·변융태 후원자들이다. 이들은 현대불교신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운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 받았다.

